

Keywords

suffering
enemies
monotheism
theodicy
past experience of God
God's presence and absence

- 투고일: 2015년 04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4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5월 06일



정중호(계명대)

1. 서론

한국 성경 해석사를 작성한 많은 학자들은 1900년 대부터 한국 성경 해석사를 시작하고 있다.¹⁾ 왜냐하면 1882년 존 로스(John Ross) 목사가 만주 심양에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를 한글로 번역 출간하였기 때문이다.²⁾ 그러나 한국인이 성경을 읽은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며 비록 교리서와 발췌성경 형태를 읽기 시작하였지만 성경 내용을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1014).

1) 문희석, 「한국교회구약성서해석사」, 1900-1977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변조은, “한국교회의 성서해석사,” 문희석 편, 「구약성서해석학」 (대한기독교서회, 1975), 307-339; Tai Il Wang, “Retrospect and Prospect of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구약논단」, 37집 (2010), 12-26.

2) 김중은, “한국어성경 번역의 역사,” 「기독교사상」, 410호 (1993. 2), 25.

분명히 읽고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4복음서의 삼분의 일 정도 들어있는 「聖經直解(성경직해)」는 이미 1762년 이전에 조선에 들어왔으며, 1790년경에는 역관인 최창현(崔昌顯)에 의해 한글로도 번역되었다.³⁾ 따라서 한국 성경 해석사를 1900년대부터 시작하는 것은 성경 해석사를 과도히 축소시킨 것이기에 1900년 이전의 성경 해석사를 다시 조명하여 추적할 필요가 있다.

시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898년 시편이 한글로 번역된 「시편촬요」를 주목하면서 시편의 해석사도 1900년대부터 시작하고 있다.⁴⁾ 그러나 「미미교회강례」(1890),⁵⁾ 「의경문답(義經問答)」(1893), 「위원입교인규도(爲願入教人規條)」(1895),⁶⁾ 「조선크리스도인회보」(1897) 등에 이미 시편이 일부 번역되어 있었다.⁷⁾ 비록 민영진, 윤춘병 등이 19세기말 구약번역 전반에 걸친 논의를 하면서 시편에 대한 언급을 한 바는 있지만 깊이 있게 논의하지는 못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시편의 경우는 장례예식 때 연도(煉禱) 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어느 부분보다 먼저 번역되었다. 1865년에 한글로 간행된 「천주성교례규(天主聖教禮規)」에는 시편 여덟 편이 번역되어 있다.⁸⁾ 그리고 1801년 윤현의 집에서 발견된 「향례주성영

송(向예슈聖詠誦)은 시편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짐작된다.⁹⁾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갑오경장(1894년)까지 통용되는 한국의 공식적인 글은 한글이 아니라 한문이었고 사대부들은 한문을 당연히 선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경전일 경우 한문으로 된 것이어야 신뢰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성경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한문성경의 형태로 들어와서 읽혀졌으며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식자층에서는 굳이 한글로 번역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인이 한문을 읽을 때는 중국인과 달리 구결(口訣)을 달면서 해석을 하게 된다. 즉 성경해석이 일어나는 것이다.¹⁰⁾ 대표적인 경우가 이수정의 현토(懸吐)성경이다. 이 성경은 중국에서 발행한 한문성경을 해석하여 구결을 붙인 것이었다.¹¹⁾ 따라서 시편을 포함한 한국성경해석사를 연구할 때 당연히 한문성경도 포함시켜야 한다.

시편이 한문으로 번역된 역사는 당나라 때 중국에 들어온 경교문헌에서 多惠聖王經(다혜성왕경)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몽골제국 시대에도 시편이 번역되었다는 기록이 있다.¹²⁾ 시편 번역은 18세기 천주교 신부들에 의해 계속되었는데 1771년경 시편을 한문으로 번역하고 주석한 「聖詠續解(성영속해)」와, 뽀와로(Louis de Poirot, 1735-1814) 신부에 의해 번역된 「達味聖詠(달미성영)」이 있다.¹³⁾ 본격적으로 시편을 비롯한 한문 구약성경이 번역된 것은 19세기 이후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였다. 한문 시편은 18세기 이전에는 교리서를 통해서, 그리고 19세기에는 한문성경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으며 읽혀졌다.

3) 조화선, "성경직해의 연구," 최석우신부회갑기념 「한국교회사논총」 3집 (1982), 247-277;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천주교회사 1」(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227.
 4) 김중은, "구약성서국역사," 「신학사상」 22집 (1978), 24-66; 김중은, "최초의 구약국역선구자 알렉산더 피터스(A. A. Peters, 彼得)," 「교회와신학」 13 (1981), 29-42.
 5) Henry G. Apenzeller, 「미미교회강례」(삼문출판사, 1890), 21-22.
 6) Samuel Austin Moffet, 「위원입교인규도(爲願入教人規條)」(1895), 30-31. 윤춘병, "초기 한국 기독교 문헌에 기록된 한글판 구약," 「기독교사상」 통권 340호 (1987년 4월), 132, 리진호, 「한국성서백년사」(대한기독교서회, 1996), 132-133.
 7) 민영진,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 연재된 구약," 「기독교사상」 vol.30 no.12 (1986, 12), 117; 한국 감리교사학회 편, 「조선 크리스도인의 회보」 영인본, (한국교회사 문헌 연구원, 1990).
 8) M. N. A. Dableuy, 「천주성교례규(天主聖教禮規)」(1887); 강영애, "가톨릭 상징례 노래인 연도(위령기도)의 변모양상," 「우리신학」 6 (2008), 79-101; 주은경, "한국 천주교 연도와 상징례 문화,"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주은경, "한국 천주교 장례예식서를 통해 본 장례문화와 연도(煉禱)의 노래문화," 「한국음악사학보」 제40집 (2008), 589-622.

9) 하성래, "한국 천주교회의 한글 번역 활동," 한국교회사연구소편, 「한국 천주교회의의 성찰」(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516.
 10) 정중호, "한문성경기(漢文聖經期)와 성경 해석," 「신학사상」 165 (2014), 92-98.
 11) 오미영, "한국의 현토한문성서와 일본의 훈점한문성서에 관한 비교 연구," 「일어일문학연구」 51(2004), 80.
 12) 황정욱, 「예루살렘에서 장안까지」(한신대학교 출판부, 2005), 254. 多惠聖王經이란 '다윗왕시편'이란 뜻이다.
 13) 徐宗澤 編著, 「明清問耶蘇會士譯不提要」(世紀出版集團上海書店出版社, 2010), 14. 達味聖詠이란 '다윗시편'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시편은 일찍부터 한문성경 형태로 한국에 들어와서 읽혀지고 해석되어 왔으며, 한글로 번역되었고 기도로 드려졌기에 시편 해석사를 19세기 이전으로 다시 추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1900년 이전 시편이 어떻게 번역되고 해석되었는지를 추적하여 밝히려는 것이다.

2. 한문으로 번역된 시편

초기에는 시편이 한문성경 형태로 전래되었는데 한문 시편은 경교 문헌과 몽골제국 문헌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 비록 경교의 시편과 몽골제국 시대의 시편이 한국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확인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본들이 중요한 것은 후대 한문 번역본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경교(景教)가 중국에 들어와서 당나라 때 시편이 번역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경교의 찬미가인 「大秦景教大聖通真歸法讚(대진경교대성통진귀법찬)」 말미에 “...多惠聖王經(다혜성왕경)...을 독송하라”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¹⁴⁾ 다혜성왕경은 시편을 가리킨다. 또한 「尊經(존경)」의 기록에 의하면 경교 번역문 35권 가운데 경정(Adam)이 번역한 것이 30권이었다고 한다. 그 가운데 다혜성왕경이 들어있다.¹⁵⁾ 시편 번역은 몽골제국 시대에도 이어졌는데 교황 니콜라오 4세의 서한을 가지고 1294년경 몽골 제국에 들어와 선교한 몬테코르비노 요한(John of Montecorvino, 1246/7-1328년)이 1305년 보낸 편지에서 타타르 말로 신약성경과 시편을 번역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이

14) 황정욱, *웃글*, 253.

15) 尊經은 당이 패망한 906년에서 둔황 석굴이 폐쇄된 시기인 1036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Samuel Austin Moffet,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Asia* (Orbis Books, 2005), 300-301; John Foster, *Church of the Tang Dynasty*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1939), 107-114.

미 타타르어와 문학을 배웠다. 그리고 신약성서 전권과 구약의 시편(聖詠)을 그 언어로 번역했다. 그 번역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¹⁶⁾

16세기 말부터 천주교 신부들이 중국에서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천주교 관련서적들과 교리서들이 한문으로 저술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에도 들어왔다. 1608년 마테오 리치가 저술하였으며 1801년 이전에 조선에 들어온 「畸人十篇(기인십편)」에는 시편을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시편 90편 4절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인용하면서 해석도 하고 있다.¹⁷⁾

성경에서는 천당을 일컬어 “천주어전에서 천년은 이미 지나간 어제와 같다(天主御前, 千載如己過之昨日也).”라고 말합니다.

“현재 운행중인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지 않고 “어제”라고 말합니다.

[천 년이] 마치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이 매우 짧다는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을 번역하면 “당신(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畸人十篇(기인십편)」에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천당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곳인지에 대해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하면서 ‘오늘’이 아니라 이미 경험하였으며 빠르게 지나가 버린 ‘어제’에 주목하여 해석하였다. 즉 천당의 날은 너무도 행복한 날들이기에 매우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1614년 예수회 신부 뵘또하(Diego de Pantoja, 龐迪我, 1571-1618)에 의해 저술되었으며 18세기 상반기에 조선에 들어

16) Marshall Broomhall, *The Bible in China* (Center for Chinese Materials, 1934), 31-32. 재인용. 시마무라 타카시, 안중환 역, “몽골 성서 번역의 역사”, 『성경원문연구』 제19호(2006), 201.

17) Matteo Ricci, 「교우론. 스물다섯 마디 잠언. 기인십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309; 經講天堂, 曰: ‘天主御前, 千載如己過之昨日也.’ 不曰: 如現運日, 而曰: 己過之日. 不曰: 今日, 而曰: 昨日. 若無有者, 然以指基短之至也.

은 「七克(칠극)」에서 시편 72편 12-14절과 시편 57편 4절이 인용되었다.¹⁸⁾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도세자(1735-1762)가 조선시대 화첩 ‘중국역사회모본(中國歷史繪模本)’의 서문을 기록하였는데 그 가운데 「聖經直解(성경직해)」와 「七克(칠극)」을 언급하였다는 것이다.¹⁹⁾ 이 기록은 1636년 디아즈(Manoel Diaz [1574-1659])가 저술한 「聖經直解(성경직해)」와 1614년 뵘또하가 저술한 「七克(칠극)」이 적어도 1762년 이전에 조선에 들어왔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다.²⁰⁾

또한 1624년 삼비아시(Francis Sambiasi, 畢方濟, 1582-1649)에 의해 저술되었으며 18세기 초에 조선에 들어온 「靈言蠡勺(영언여작)」에 시편 46편 10절과 119편 96-99절, 그리고 시편 94편 17절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²¹⁾ 마지막으로 뵘와로(Louis de Poirot, 1735-1814) 신부에 의해 번역된 「達味聖詠(달미성영)」이 있는데 필사본으로 남아 있다.²²⁾

19세기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구약 전체가 한문으로 번역됨으로 인해 한문 시편 전체가 전해져 읽혀졌다.²³⁾ 비록 조선에서는 박해가 심한 때이기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한문성경이 전해지곤 하였다.²⁴⁾

18) Didace De Pantoja, 박유리 역 「七克」(일조각, 1998), 81, 118.

19) 한국교회사연구소, 윗글, 227, 318. 한국일보 “사도세자 뒤주 감히기 나흘 전 쓴 친필” 2009. 3. 24.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0903/h2009032402410684330.htm> 사도세자가 성경직해를 읽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가 천주교인이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사도세자의 서자이자 철종의 조부인 은언군은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 겨우 9세였으며 부인과 며느리가 세례 받았다는 이유로 1801년 사사된 사실이 있다.

20) 「칠극」은 명(明)나라 말기 석학(碩學)인 이지조(李之藻)가 서학서(西學書)를 모아 총서(叢書)로 1629년에 간행한 천학초함(天學初函)에 포함되어 있으며 1998년 한글로 번역되었다. Diego de Pantoja, 박유리 역, 「七克(칠극)」(일조각, 1998).

21) F. Sambiasi, 김철범, 신창석 역, 「영언여작」(일조각, 2007), 171, 182.

22) 徐宗澤 編著, 윗글, 14.

23)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번역된 한문성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바람: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성서,” 왕대일 편, 「말씀의 뜻 밝혀주시오: 주석과 성서번역」(대한기독교서회, 2000), 413-499.

24) 1839년 7월 25일 우의정 이지연이 다음과 같이 말하자 대왕대비가 동의했다는 기록이 있다: “요즈음 서학의 무리를 잡아들임을 보면 북경서 책을 사오지 못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에서 이를 금함이 엄하지 않아 요망된 책이 흘러 들어오니... 이를 범하는 자는 국경에서 처단하자”. 유홍렬, 「한국천주교회사」(기독교출판사, 1962), 329-330.

3. 한글로 번역된 시편

1790년대의 역관인 최창현(崔昌顯)에 의해 한글로 번역된 「성경직히」에도 시편을 발견할 수 있다. 1636년에 저술된 「聖經直解(성경직해)」가 한글로 번역되었을 때 1740년에 선교사 마이야(De Mailla)가 쓴 「聖經廣益(성경광익)」을 함께 첨가하여 「성경직히광익」이라 하였고 이를 통상 「성경직히」라고도 하였다.

「성경직히」는 복음서를 번역한 것인데 복음서에 인용된 시편이 함께 번역된 구절이 있다. 「성경직히」에 인용된 시편은 다음과 같다: 시 22:1(막 15:34=마 27:46); 35:19(요 15:25); 69:4(요 15:25); 78:2(마 13:35); 91:11-12(마 4:6); 110:1(마 22:44); 118:25-26(마 21:9); 118:26(마 23:39). 이 가운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시편 22편 1절의 경우 마태복음 27장 46절(=막 15:34)에 인용되어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내쥬여내쥬여엇지하야나를브리시뇨?”²⁵⁾

기독교가 강조한 것은 천국과 부활이었기에 장례예식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특히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인정하고 죽은 자를 위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연도 기도를 드렸는데 이 때 시편으로 기도를 드렸다. 이러한 시편이 포함되었으리라 짐작되는 한글번역판 「수진일과」가 1791년부터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袖珍日課(수진일과)」는 예수회 중국선교사 디아즈(E. Diaz, 陽瑪諾, 1574-1659)가 1638년에 편찬한 것인데, 이 책은 예수회 중국선교사 롱고바르디(N. Longobardi, 龍華民 1559-1654)가 저술하여 1602년 출간한 기도서인 「天主聖教日課(천주성교일과)」를 토대로 하여 편찬한 것이다.²⁶⁾ 「袖珍日課(수진일과)」에는 연도기도문인 성영(시편)이

25) 한국교회사연구소, 「성경직해 2(영인본)」(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200-201.

26) ‘수진’이란 휴대하기 쉬운 소형이라는 의미이다.

포함되어 있었으며 1791년 신해박해 때 천주교인들이 이 책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조선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²⁷⁾ 특히 중요한 것은 1791년 이전에 「袖珍日課(수진일과)」가 한글로 번역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다음 두 가지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승훈이 1798년 북경 선교사들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86년…이 모임에서 제가 미사 성체를 드리고 견진성사를 거행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절은 여러 책과 시과경(時課經)에 있는 대로 하되, 좀 삭제도 하고 첨가도 했습니다. 경문은 우리 기도서에서 택했습니다.”²⁸⁾

여기서 ‘우리 기도서’란 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글번역본 「수진일과」 혹은 「천주경과」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윤환도 이승훈이 보낸 편지의 ‘우리 기도서’를 한글로 번역된 기도문으로 보았다.²⁹⁾

둘째, 1791년 체포되어 심문을 받은 정인혁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도 「수진일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책은 수진 1책, 절요상 1권, 실의 2책, 자증 4책을 역시 필공에게서 빌려다가 보았는데… 수진 1책 및 한글로 가려 뽑아 번역한 수진일과도 아울러 가지고 갔습니다.”³⁰⁾ 이 진술에서 “한글로 가려 뽑아 번역한 수진일과(諺書抄翻袖珍)”가 나타나며 이것이 바로 한글로 「수진일과」를 번역한 증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진일과」에 포함된 시편도 당연히 한글로 번역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적어도 1791년 이전에 시편 중 일부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었고 실제 장례에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³¹⁾

1801년 신유박해 때 윤현의 집에서는 「향슈보본명성」이 발견되었는

데 하성래는 「向예슈報本聖詠誦」의 오기로 보았다.³²⁾ 그리고 윤현의 집에서 「향례주성영송(向예슈聖詠誦)」이 발견되었는데 성영(聖詠)은 구약성서의 시편을 가리키기에 기도와 전례를 위해 시편이 한글로 번역되어 사용된 것으로 짐작된다.³³⁾ 이 시편 번역의 경우 중국에서 1771년 경 번역되었던 「聖詠續解(성영속해)」를 번역한 것으로 짐작된다. 「聖詠續解(성영속해)」는 플로리옹 바르(Florianus Bahr, 1706-1771)에 의해 번역된 것으로 시편 번역과 주석이 실려있다.³⁴⁾

1801년 신유박해 때 시편 기도문이 포함된 「天主聖教日課(천주성교일과)」를 한글로 번역한 책들이 발견되었는데, 김희인의 집에서 발견된 책 가운데는 「성교일과(聖教日課)」, 「공경일과(恭敬日課)」가 있고, 윤현의 집에서는 「성교일과(聖教日課)」, 「턴주성교일과」, 「년옥도문(煉獄禱文)」 등의 기도문들이 발견되었다.³⁵⁾ 윤현의 부인 임조이는 자신의 집에 감추어둔 책들은 모두가 한글로 번역한(諺翻)책이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었다.³⁶⁾

주목할 만한 것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윤현의 집에서 발견된 「턴주성교일과」라는 기도서와 1838년 앵베르(L. J. M. Imbert, 范世亭, 1796-1839) 주교가 번역하고 다블뤼(M. N. A. Daveluy, 安敦伊, 1818-1866) 주교가 1862년에 간행한 한글 기도서인 「턴주성교공과」와의 관련성이다. 중요한 것은 「턴주성교공과」 책의 내표지에 ‘턴주성교일과’라는 제목이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턴주성교공과는 이미 1801년 이전에 한문 음독으로 번역되었거나 혹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1862년에 수정 혹은 새롭게 번역하여 간행했

27) 주은경, *윗글*(2009), 36.

28) 최석우, “이승훈 관계 서한 자료,” 『교회사연구』 8집(1992), 173.

29) 崔允煥, “天主聖教功課의 原本,” 『論文集』 第2輯(1976), 41-42.

30) 「邪學懲義」, “정인혁공초,” 77-78. 정인혁은 1791년 11월 11일 체포되어 심문을 받았다.

31) 방상근, “연령회(연령회),” 『교회와 역사』 제308호(2001), 9.

32) 하성래, *윗글*, 504.

33) *윗글*, 504, 516.

34) *윗글*, 504.

35) 「년옥도문(煉獄禱文)」은 「성교일과(聖教日課)」와 「턴주성교일과」의 연옥도문 항목에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36) 「邪學懲義」, “任召史空草,” 210; 조광, 『조선후기 사회와 천주교』(경인문화사, 2010), 202.

을 수도 있다. 앙베르 주교는 1837년 한국에 입국하여 1839년 순교하였기 때문에 박해시기에 심혈을 기울여 번역하고 편찬할만한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1801년 신유박해 이전에 번역된 「틴주성교일과」를 일부 수정하여 편찬했을 가능성이 있다.³⁷⁾ 「틴주성교공과」에는 제일권 만과에 “성영 제 일백 이십 구”편(시 130편)으로 기도하도록 되어 있고, 제 이권에는 “다위 성왕의 통회 성영” 즉 시편 51편으로 기도하도록 되어 있다.³⁸⁾ 따라서 시편 130편과 51편은 1801년 신유박해 이전부터 한글로 번역되어 기도문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801년 신유박해 이전에 이미 한글로 천주교 서적들이 번역되었다는 것은 「正祖實錄(정조실록)」과 「日省錄(일성록)」에도 나타난다. 1787년 4월 이사람(李師濂)이 “시골의 우맹(愚氓)들까지 한문이나 언문으로 번역된 책들을 돌려본다”고 하였으니 한글로 번역하는 일은 1787년 이전부터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³⁹⁾ 또한 1788년 이경명(李景溟)도 “지극히 우매한 전맹(田氓)이나 아무 것도 모르는 촌맹(村氓)이라 할지라도 그 책을 언문으로 베껴 신명처럼 받들며 죽어도 회오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⁴⁰⁾ 한글로 번역된 신앙서적은 1835년경에는 이미 보편화되었는데 1835년 체포된 이호영은 말하기를 “성교를 위하여서는 한문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저는 언문을 알 수 있으므로 이것을 배우는데 아무 곤란도 없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⁴¹⁾

천주교 신도들이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이처럼 기도문을 많이 읽었고 외우고 있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성도들 가운

데는 기도문을 모두 암송하는 성도도 있었다. 1850년 10월 1일 최양업 신부가 르그레즈와(P. L. Legregeois)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 “조선에서는 일상도문(Manuale christianorum, 성교공과)이 짧지 아니한데, 바르바라는 그것을 모두 암송했습니다.”라고 전하였다.⁴²⁾ 이러한 기도문은 널리 읽혀졌고 많이 암송되었던 것이다.

4. 「틴주성교례규(天主聖敎禮規)」의 시편 기도문

시편이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는 「틴주성교례규(天主聖敎禮規)」는 천주교 장례에 관한 예식서로서 다블뤼(M. N. A. Dableuy, 安敦伊) 주교가 라틴어본인 「로마예식서(Rituale Romanum)」를 토대로, 한문본인 「聖敎禮規(성교예규)」를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다블뤼 주교는 「聖敎禮規(성교예규)」 전체 5권 가운데 3권만 선택하여 번역하였고,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게 저술한 것이라 볼 수 있다.⁴³⁾ 이 책은 1865년에 상하 2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⁴⁴⁾ 이 책의 목판 일부가 절두산 순교 기념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887년에는 2권 1책의 활판본으로 간행되었다. 특히 제2권에는 성영(시편) 129(130), 50(51), 112(113), 118(119), 23(24), 148, 149, 150편 등이 번역되어 있다.⁴⁵⁾ 괄호 안의 숫자는 현재 「개역개정본」의 시편 편수를 표시한 것이다. 아래는 「틴주성교례규」의 시편 번역문 중 일부인데 원래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지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작은 글씨로 해설

37) 강영애, 未刊, 85.

38) 崔允煥, 未刊, 55-56, 73; 하성래, 未刊, 521. 공과란 광의로는 매일의 기도를 의미하고 협의로는 주일과 축일 및 기타의 기도문을 수록한 기도서를 의미한다.

39) 「日省錄」, 12책, 정조 11년 4월 27일 갑자, 588; 조광, 未刊, 259.

40) 「正祖實錄」, 12년 8월 2일 신묘

41) 유홍렬, 未刊, 320.

42) Ch. Dallet, 최석우, 안응렬 역주, 「韓國 天主敎會史 下」(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164.

43) 강영애, 「한국 천주교 상장례노래 煉禱」(민속원, 2007), 71.

44) 하성래, 未刊, 525.

45) 이처럼 연도기도문으로 시편을 활용하듯이 시편은 주제적인 관련성을 주목하면서 혹은 활용되는 범주로도 읽을 수 있다. 김성수, “문맥으로 시편 25-33편 읽기,” 「구약논단」, 48집(2013), 68-69; 예언서에서도 시(詩)이면서 기도인 시편을 발견할 수 있다. 김성래, “요나의 기도(온 1:17-2:10)에 묘사된 요나의 성격 이해,” 「구약논단」, 53집(2014), 238.

을 붙인 부분이 있는데 쉽게 구분하기 위해 괄호 안에 넣었다.⁴⁶⁾

성영 데이십삼 (시 24)

대디와 원만하게 실린 만물이며 온 텃하와 거기 거하는 모든자 | 다쥬끼 속하
엿도다

쥬 | 창히 우회 세우신 거시오 모든 강하 우회 비명하신 거시로다
쥬의 산으로 뉘 능히 오르며 그 거룩하신 처소에 뉘 능히 류련홀고
행실이 무죄하고 막음이 정결하야 제 심명을 헛되이 밋지 아니하며 늬를 피하
야 허셔를 내지 아닌자 | 로다

이런이가 쥬끼 강복함을 밋을거시오 저를 구하시느 텃쥬끼 공련히 녀이심을
넙으리로다

이런 사람은 쥬를 성실이 좇는류 | 오 약교의 텃쥬의 성용을 근절이 좇는
류 | 로다

(이러므로 오쥬와 한가지로 능히 텃당쥬의 산으로 영화로이 오르리라)
쥬문장들아 너희 문을 떠들며 영원한 문이여 열닐지어다 영광의 님군이 들어
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님군이 뉘시뇨 강용하시고 능하신 쥬 | 시오 전장에 능하신 쥬 | 시
로다

쥬문장들아 너희 문을 떠들며 영원한 문이여 열닐지어다 영광의 님군이 들어
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님군이 뉘시뇨 력능의 쥬 | (력능은 텃신품을 날음이라) 이 영광의
님군이시로다

성영 데 오십 (시 51)

텃쥬여 네 즈비하심을 크게 베프샤 나를 공련이 녀이쇼셔
또 네 만코만흔 즈비하심을 가져 내 죄악을 샴하야 업시하쇼셔

46) 민아오싱딩 감준, 『텃쥬성교례규』(京城, 1887), 논문의 지면 제한으로 인해 4편만 게재하였음.

내 죄악을 씻고더 씻스시고 내 죄의 더러운 거슬 조출케하쇼셔
나 | 임의 내 죄악을 아느니 내 죄홍상 나를 더하야잇느이다
나 | 홀노 네게 죄를 범하고 네 압회셔 악을 지었느이다
네 말슴의 올흠이 나타날 거시오 또한 너와 맞셔는 무리의 행복함을 밋으시리
로다
나는 죄악에서 삼기고 내 모친이 나를 죄중에 비엿느이다
너는 진실함을 사랑하시니 과연 네 지혜의 심오하고 은밀한 거슬 내게 열어 주
섯느이다
너 | 이소보로(이소보는 풀 일흠이니 고교 사죄하는 례에 이소보로 희사·이
의 피를 죄인의게 뿌리느니라) 내게 뿌리쇼셔 나 | 곳쥬 조출하리이다 나를 식
기쇼셔 나 | 곳 눈에서 더 희리로 소이다 내게 뿌리쇼셔 나 | 곳쥬 조출하리
이다 나를 식기쇼셔 나 | 곳 눈에서 더 희리로소이다
너 | 내 귀에 깃븐 소리(사죄하시느 허락) 들니시리니 곳스러졌던 내 희골
이(통회함으로 육신이 다 느러졌다 말) 다시 니러나 용약하리이다
네 얼굴을 두루혀 내 죄를 보지 말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샴하야 업시 하쇼셔
텃쥬여 조출한 막음을 내게 새로 내시고 내심신을 바로고 새롭게 하쇼셔
나를 네 압회셔 내치지 말으시고 또 네성신을 앗지 말으쇼셔
네 구하시느 락을 내게 도로 주시고 또 네성총으로써 나를 견고케 하쇼셔
인하야 내가 너 | 뵘아 힘하시는 길홀 악한자를 ㄱ르치리니 악한 무리는 네게
회두하리이다
텃쥬 나를 구하시느 텃쥬여 나를 혈죄에(살인하 죄라) 구하쇼셔 곳 내 혀 | 네
의 덕을 찬양하리이다
쥬여 내 입을 열어주쇼셔 곳 내 입이 너를 찬양하리이다
너 | 만일 제를 원하섯더면 나 | 드렸시릿마는 회심은 네 즐기지 아니시리이다
텃쥬의 즐기시는 제는 크게 설워하는 막음이라 통회하고 겸손하는 막음은 쥬
여 너 | 브리지 아니시리이다
쥬여 네 인즈하신 막음으로 은혜를 시온의게 (시온은 예루사렘 성의 한 곳 일흠

이라) 베프샤 예루사렘의 성을 짓고 견고케 하소서
 그때에 의로움의 제와 기구하는 레물과 찬미하고 공경하는 제를 너 | 흠향하
 시리니 이때에는 박성들이 네 제터 우회 감사하는 희싱을 만히 두어 드리리이
 다

성영 데 일빅이십구 (시 130)⁴⁷⁾

주여 나 | 집고 그윽흔 곳에서 네게 부르지지^느이다 주여 내 소리를 굶어드르
 쇼셔
 네 귀를 기우리샤내 근구하는 소리를 드르쇼셔
 주여 너 | 만일 죄악을 슬피시면 주여 뉘 능히 당하리잇가
 주여 준비하심이네 마음에 잇사 ·며 또 네 훈명을 인하야 너를 기드렛^느이다
 내 령혼이 주의 말씀을 인하야 기드렛시며 내 령혼이 주께 브랏^느이다
 새벽으로부터 밤되기에 나르도록 이스라엘이 (고교박성을 날릿는 말) 주께 브
 랃지어다
 불상이 너이심이 주의 마음에 잇스며 구속하시는 은혜 또흔 그 마음에 충만하
 심이로다
 인하야 이스라엘을 제 모든 죄악에서 친히 구속하시리로다

성영 데 일빅오십

그 거룩하신 처소에 주를 찬송함이며 그 견강하신 죄에 주를 찬송함지어다
 주의 권능을 찬송함이며 주의 무량이 크심대로 찬송함지어다
 호기를 불어 주를 찬송함이며 현악으로 (현악은 줄노든 풍류라) 더를 찬송함
 지어다
 도고의 (도고는 북종류라) 소리로 주를 찬송함이며 고슬과 풍금으로 더를 찬송
 함지어다

47) 「천주성공공과」 1887년판의 성영 129편과 정확하게 동일하다.

금성으로 (쇠로 만든 풍류라) 주를 찬송하고 희락하는 풍류로 더를 찬송함이며
 함성들은 다 주를 찬송함지어다

「던쥬성교례규(天主聖敎禮規)」에 수록된 8편의 시편을 분석하여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표제 생략 - 129(130)편의 경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
 제가 생략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시편의 표제가 생략되어 있다. 연도
 기도문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시편의 역사적 배경 등 기도 이외의 내용
 임을 알려주는 표제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짐작된다.

2) 해설 첨가지명과 인명은 특별히 옆줄을 그어 표기하였다. 그리고
 외래어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등 생소한 단어와 구절일 경우 작은
 글씨로 아래와 같이 해설을 첨가하였다;

- 129(130)편 - 이스라엘이 (고교 박성을 날릿는 말)
- 23(24)편(내용에 대한 해설) - 이리므로 오주와 혼가지로 능히 던당쥬의 산
 으로 영화로이 오르리라.
- 력능의 주 | (력능은 던신품을 넘음이라)
- 148편 - 적슈 | (적슈는 싸헌몰이라 말)
- 50(51)편 - 이소보로(이소보는 풀 일흠이니 고교 사죄하는 레에 이소보로 희
 싱의 피를 죄인의게 뿌리^느니라)
- 깃븐 소리를 (사죄하시는 허락)
- 히골이(통회함으로 육신이 다 느러졌다 말)
- 혈죄에 (살인흔 죄라)
- 시온의게 (시온은 예루사렘 성의 혼 곳 일흠이라)
- 150편 - 현악으로 (현악은 줄노든 풍류라)
- 도고의 (도고는 북종류라)
- 금성으로 (쇠로 만든 풍류라)

3) 직역보다 의역을 선호 - 118(119)편의 경우 ‘행위가 온전하여’를

‘세상길에 무들미 업시’로 의역하였다. 이처럼 시편의 내용을 충실히 번역하였지만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선호하여 번역하였다. 또한 50(51)편에 ‘번제’라는 어려운 용어를 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풀어 번역하였다: “번제와 온전한 번제”(19절)라는 구절을 “기구흐는 레물과 찬미흐고 공경흐는 제”라고 번역하였다. 그리고 112(113)편에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3절)를 “동으로브터 서에 니르히”로 알기 쉽게 번역하였다.

4) 존칭어 - ‘여호와’를 ‘쥬’라고 번역하고, 하나님을 ‘턴쥬’라고 번역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라고 부를 때 ‘너’ 혹은 ‘네’라고 번역하여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은 면이 특이하다.

5) 의도적으로 본문을 변경하여 번역한 경우가 있다: ‘셀라’(23[24]편)와 ‘할렐루야’(112[113], 149, 150편)를 생략하고 번역하지 않았다.

129(130)편 - “새벽으로브터 밤되기에 니르도록”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부분을 축약하여 번역한 것이다.

112(113)편 - ‘여호와와 종들’을 ‘으히들’로 번역하여 유아장례식에 사용하였다.

6) 129(130)편과 50(51)편의 끝에 연도기도를 위해 한 절을 추가함 - “쥬여 망자의게 기리 평안흠을 주소셔 영원히 빛치 더의게 빛최여지이다.” 「천주성교공과」의 129(130)편에는 “쥬여 망자들의게 기리 평안흠을 주소셔 영원히 빛치 더히게 빛최여지이다. 망자들이 평안흠에 쉬여지이다. 아멘”이 첨가 되어 있다.

7)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한글로 번역하며 어려운 한자일 경우 해설을 첨가하였다. 예를 들면 시편 148편의 경우 ‘적슈논(적슈논 싸힌물이라 말)’이라는 형식으로 해설하였다.

8) 번역분량 - 각 시편은 본문 전체를 번역하였는데 118(119)편의

경우 16절까지만 번역하였다.

9) 기타 - 149편에 ‘모임’을 ‘못거지’ 등 당시의 통용 언어로 번역하였다. 또한 시편을 완전히 한글로 번역하였지만 한자어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우리 주’를 ‘오쥬,’ 하나님의 ‘얼굴’을 ‘성용,’ ‘바다’를 ‘창해’로 번역하였다(23[24]편).

1860년 경 다블뤼 주교는 장례식 때 한글로 번역된 시편을 한국인의 가락에 맞추어 큰 소리로 외우면서 행진을 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조선말로 된 장례식 기도문과 예절을 공포한 뒤로 많은 신자가 외교인을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공공연히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조선에서 대낮에 십자가를 앞세우고 참석자는 각기 촛불을 들고 성영(聖詠)을 큰 소리로 외우면서 동네 길을 지나가는 장례 행렬을 펼친다는 것을 상상하시겠습니까?⁴⁸⁾

장례식 때 십자가를 앞세우고 촛불을 들고 성영(시편)을 외면서 큰 길을 지나가는 장례행렬은 그 예절이 매우 점잖고 아름다워 이를 보고 개종하는 자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장례예식의 연도(煉禱)로서 드러진 시편은 신자들 사이에 널리 전파되면서 상가에서 불리는 전통선율의 연도로 정착하게 되었다.⁴⁹⁾ 이와 같이 여러 성도들이 밤을 새우면서, 혹은 장례행렬 가운데서 한 목소리로 기도로 드러진 시편은 음악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정착하게 되었는데 흔들어주고, 꺾어주고, 밀어주는 시김새로 표현되었다. 한국 연도의 가창형식은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사용된 교창형식과 답창형식을 한국의 전통음악에서 사용된 상여소리의 선·후창 방

48) Ch, Dallet, 최석우, 안응렬 역주, 윗글, 348-349.

49) 강영애, 윗글(2008), 94; 주은경, 윗글(2008), 598.

식과 융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천주교 장례예식에는 두 사람이 선소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명은 계의 선소리를, 한 명은 응의 선소리를 하였다. 그리고 신자들은 대응창법으로 계와 응을 하였다.⁵⁰⁾

이처럼 시편을 포함한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릴 때 조선에서는 일찍부터 한국 전통의 가락으로 기도를 드리는 관습이 자리를 잡았다. 예를 들어 1801년 신유박해 때 여주에서 순교한 이중배(李中培)가 부활절 때 ‘알렐루야’ 기도문을 바가지 장단에 맞추어 기도드렸다는 기록이 있다.⁵¹⁾

5. 1800년대 말 시편 번역과 해석

1800년대 말 개신교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선교하면서부터 개신교 성도들을 위해 시편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시편 번역사에 있어서 「시편촬요」가 최초의 한글 시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에도 시편은 부분적으로 번역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미이미교회장례」는 아펜젤러의 저서로 1890년에 발행되었는데 시편 39편과 90편이 번역되어 있다.⁵²⁾ 그리고 「의경문답(義經問答)」은 1893년 올링거(F. Ohlinger, 茂林吉, 1845-1919) 선교사가 발행한 저서인데 362개의 묻는 말에 ‘보라’는 장절 중에는 시편 몇 구절이 번역되어 있다(시편 19:4; 49:8-9; 51:5; 70:14; 92:2-3; 145:17; 89:14). 또한 「위원입교인규도(爲願入教人規條)」는 1895년 마페트 선교사가 저술하였는데 시편 95편 1-3절과 98편 4-6절이 번역되어 있다.⁵³⁾

50) 주은경, *잊을(2008)*, 598.

51) Ch. Dallet, 최석우, 안응렬 역주, 『韓國 天主教會史 上』(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458

52) Henry G. Apenzeller, *잊을*, 21-22.

53) Samuel Austin Moffet, *잊을*, 30-31. 윤춘병, *잊을*, 132.

아펜젤러 일기를 보면 이미 1886년 이전부터 한글로 번역된 신구 약성서들(The Bibles)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⁴⁾ 그리고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 실린 시편들은 1897년 5월 19일자에 게재된 시편 32장 1-11절과, 1897년 12월 22일자에 게재된 시편 122장 1-9절이다.⁵⁵⁾ 이 시편들은 독자적으로 번역된 시편들이었고 1898년에 피터스(A. A. Peters)가 번역한 「시편촬요」에 포함되지 않은 시편들이다.⁵⁶⁾ 「시편촬요」는 시편 발췌번역본으로 1898년 유대인 개종자 알렉산더 피터스에 의해 번역된 것으로 총 62편이 번역되어 있다.⁵⁷⁾ 유대인인 피터스는 히브리어 성경을 참조하여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쉬운 한글로 번역하였는데 시편 24편 첫 부분이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⁵⁸⁾

데이십스편 다뵈이 지은 시라.

— 짜와 짜해 그득흔것과 세상과 세상에 사는 이가 여호와와 속흐엿도다⁵⁹⁾

1897년 8월 11일자 「조선크리스도인회보」 하단에 감리교회 권사들과 전도인들이 시험에 대비하여 공부할 과목을 제시한 기사가 실렸는데 “권스의 공부하여 외올거슨 십계와 스도신경과 시편 일편 이십 삼편 오십 일편과 이스 | 아 오십 삼장과...이니라”고 되어 있다.⁶⁰⁾ 따라서 이미 시편은 낱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고 인쇄되어 널리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4) H. G. Appenzeller, *Papers-diaries (1886-1901)*, (한국감리교사학회, 1986), 13. 리진호, *잊을*, 133.

55) 민영진, *잊을*, 117; 한국 감리교사학회 편, 「조선 크리스도인의 회보 (영인본)」(한국교회사 문헌 연구원, 1990).

56) 민영진, 「(改譯)사무엘 上 下의 原譯本 :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 실린 사무엘 上 下의 MT 反映程度 및 1, 2차 改訂本文과의 比較」, 『神學과 世界』 제14호 (1987, 봄), 37.

57) 김중은, *잊을*(1978), 24-66; 김중은, *잊을*(1981), 29-42.

58) 김중은, “구약 국역사에서 알렉산더 피터스(彼得)의 위치와 의의,” 『구약논단』 27집 (2008), 163.

59) A. A. Peters, 「시편촬요」(장로회신학도서관 소장본, 1898).

60) 민영진, *잊을*(1986), 116-117.

로 짐작된다. 그리고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 게재된 것인데, 1898년 1월 12일 주일 예배 순서 가운데 “구약 몇 귀절을 넘으옵”이라는 순서가 있고 설명으로 “만일 시편을 넘거든 회중과 흠뻑 화답함이 가흠”이라 되어 있다.⁶¹⁾ 이처럼 예배시간에 시편을 교독하는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1898년에는 이미 시편이 번역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6. 결론

한국의 시편 해석사는 1900년대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편은 적어도 1700년대부터 한문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읽혀지고 해석되어 왔으며, 한글로도 번역되었고 기도로 드러졌기에 시편 번역과 해석을 19세기 이전으로 추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1900년 이전 시편이 어떻게 번역되었고 해석되었는지를 추적하여 밝히는 것이다.

한문은 갑오경장(1894)까지 통용되었던 한국의 공식적인 글이었고 사대부들은 굳이 한글로 번역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일상적인 소통 언어였다. 한문 시편이 한국에 들어와서 읽혀질 때는 독음형식으로 읽혀지고 구절을 달아 해석하는 일이 일어났다. 한문으로 번역된 시편은 경교의 多惠聖王經(다혜성왕경), 몽골제국 시대의 聖詠(성영), 17세기 초 마테오 리치의 「畸人十篇(기인십편)」, 「七克(칠극)」, 「靈言蠡勺(영언여작)」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문으로 번역되었고 18세기 이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것으로 짐작되는 한문 시편은 「聖詠續解(성영속해)」와 「達味聖詠(달미성영)」이었으며, 시편이 교리서에 포함된 것으로는 「天主聖教日課(천주성교일과)」, 「袖珍日課(수진일과)」, 「天主經課(천주경과)」 등이다.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시편을 포함한 구

61) 윗글, 116.

약 전체가 한문으로 번역되어 간헐적이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쳤다.

한글로 시편이 번역된 것은 1801년 신유박해 때 발견되었는데 「성경직희」, 「수진일과」, 「향슈보본명성(向예슈報本聖詠誦)」, 「향례주성영송(向예슈聖詠誦)」, 「턴주성교일과」 등이다. 중요한 것은 1800년대에 시편이 연도(煉禱) 기도문으로 한글로 번역되어 장례예식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이다. 「턴주성교례규(天主聖教禮規)」에 시편 24, 51, 113, 119, 130, 148, 149, 150편 등이 번역되어 1865년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고, 「턴주성교공과」에도 시편 130편과 51편이 번역되었다. 이 시편들은 기도로 번역되었으며 부분적이지만 해설도 첨부되어 있었다. 연도 기도문의 경우 여러 성도들이 밤을 새우면서, 혹은 장례행렬 가운데서 한 목소리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에 음악적인 요소와 예식적인 요소가 풍부히 들어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시편이 부분적으로 번역된 예는 「미이미교회장례」, 「의경문답(義經問答)」, 「위원입교인규도(爲願入教人規條)」, 「조선크리스도인회보」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시편촬요」에는 62편이 번역되었다.

7. 참고문헌

「邪學懲義」

「日省錄」

「正祖實錄」

장영애, “가톨릭 상장례 노래인 연도(위령기도)의 변모양상,” 『우리신학』 6 (2008), 79-101.

_____, 「한국 천주교 상장례노래 煉禱」 (민속원, 2007).

김상래, “요나의 기도(은 1:17-2:10)에 묘사된 요나의 성격 이해,” 『구

약논단」53집 (2014), 223-255.

김성수, “문맥으로 시편 25-33편 읽기,” 「구약논단」48집 (2013), 68-98.

김중은, “구약 국역사에서 알렉산더 피터스(彼得)의 위치와 의의,” 「구약논단」27 (2008), 159-182.

_____, “구약성서국역사,” 「신학사상」22 (1978), 24-66.

_____, “최초의 구약 국역 선구자 알렉산더 피터스(A. A. Peters, 彼得),” 「교회와신학」13 (1981), 29-42.

김중은, “한국어성경 번역의 역사,” 「기독교사상」410호 (1993, 2), 23-33.

리진호, 「한국성서백년사 I」(대한기독교서회, 1996).

문희석, 「한국교회구약성서해석사」1900-1977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민아오스딩 감준, 「턴주성교례규」(京城, 1896).

민영진,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 연재된 구약,” 「기독교사상」vol.30 no.12 (1986, 12), 108-118.

_____, “〈改譯〉사무엘 上·下의 原譯本 :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 실린 사무엘 上·下의 MT 反映程度 및 1,2차 改訂本文과의 比較,” 「神學과 世界」14 (1987, 봄), 5-42.

방상근, “연령회(연령회),” 「교회와 역사」308 (2001), 9-28.

변조은, “한국교회의 성서해석사,” 문희석 편, 「구약성서해석학」(대한기독교서회, 1975), 307-339.

시마무라 타카시, 안중환 역, “몽골 성서 번역의 역사,” 「성경원문연구」제19호(2006), 200-214.

유홍렬, 「한국천주교회사」(가톨릭출판사, 1962).

윤춘병, “초기 한국 기독교 문헌에 기록된 한글판 구약,” 「기독교사상」통권 340호 (1987, 4), 125-137.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민영진 박사 회갑 기념 제2권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413-499.

_____, “천주교의 성서번역,” 「성서와 함께」139호 (1987),

정중호, “한문성경기(漢文聖經期)와 성경 해석,” 「신학사상」165 (2014), 91-126.

조광, 「조선후기 사회와 천주교」(경인문화사, 2010).

_____, 「조선후기 천주교회사 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조화선, “성경직해의 연구,” 최석우신부회갑기념 「한국교회사논총」3집 (1982), 247-277.

주은경, “한국 천주교 연도와 상장례 문화,”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_____, “한국 천주교 장례예식서를 통해 본 장례문화와 연도(煉禱)의 노래문화,” 「한국음악사학보」제 40집 (2008), 589-622.

최석우, “이승훈 관계 서한 자료,” 「교회사연구」8집 이승훈 베드로 특집호 (1992), 159-244.

崔允煥, “天主聖教功課의 原本,” 「論文集」第2輯 (1976), 35-74.

하성래, “한국 천주교회의 한글 번역 활동,” 한국교회사연구소편, 「한국 천주교회사의 성찰」(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469-529

한국교회사연구소, 「성경직해 2 (영인본)」(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_____, 「한국천주교회사 1」(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황정옥, 「예루살렘에서 장안까지」(한신대학교 출판부, 2005).

徐宗澤 編著, 「明清問耶蘇會士譯不提要」(世紀出版集團上海書店出版社, 2010).

Apenzeller, Henry G., 「미이미교회장례」(삼문출판사, 1890).

_____, 「Papers-diaries 1886-1901」(한국감리교회사학회, 1986).

Broomhall, Marshall, *The Bible in China* (Center for Chinese Materials, 1934).

Dableuy, M. N. A. 「턴쥬성교례규(天主聖教禮規)」(1887).

Dallet, Ch., 최석우, 안응렬 역주, 「韓國 天主教會史 上」(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_____, 최석우, 안응렬 역주, 「韓國 天主教會史 下」(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Foster, John, *Church of the T'ang Dynasty*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1939).

Moffet, Samuel Austin, 「위원입교인규도(爲願入教人規條)」(1895).

_____,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Asia* (Orbis Books, 2005).

Pantoja, D., 박유리역, 「칠극」(일조각, 1998).

Peters, A. A., 「시편촬요」(장로회신학도서관 소장본, 1898).

Ricci, Matteo, 송영배역, 「교우론, 스물다섯 마디 잡언, 기인십편」(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0).

Sambiasi, F., 김철범, 신창석 역, 「영언여작」(일조각, 2007).

Wang, Tai Il, "Retrospect and Prospect of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구약논단」 37집(2010), 12-26.

검색어

시편

연도(煉禱)기도

「턴쥬성교례규(天主聖教禮規)」

1900년, 번역

History of th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Psalms in China and Korea up to the Year 1900

Joong Ho Cho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trace and illuminate the specific phenomenon of th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Psalms in China and Korea up to the year 1900.

Among Chinese translation of the Psalms can be found the Nestorian Dahae-seongwang-gyung (多惠聖王經) and the Mongol Empire-era Seongyoung (聖詠). In the early 17th century, Giin-sippyeon (畸人十篇), written by Matteo Ricci, Chilgeuk (七克), and Youngeon-yeojak (靈言蠡勺), contained the Psalms.

The Psalms were translated into Chinese in Seongyoung-sokhae (聖詠續解) and Dalmeeseongyoung (達味聖詠), and they supposedly came to Korea before the year 1800. Along with these books the Cheonju-seonggyo-ilgwa (天主聖教日課), Sujin-ilgwa (袖珍日課), and Cheonju-gyeonggwa (天主經課) also contained the Psalms. In the 19th century, the entire Old Testament, including the Psalms, was translated into Chinese and was brought to Korea intermittently.

Korean translations of the Psalms were found in 1801, which was at the time of the Sinyou-persecution.

They are the Seonggyung-jikhae, Sujin-ilgwa, Hyangsu-bobon-syeongyoungsong (向 Jesus 報本聖詠誦), Hyangrye-ju-syeongyoung-song (向 Jesus 聖詠誦), and Tyonju-seonggyo-ilgwa. Importantly, the

Psalms were translated into Korean as Yeondo (煉禱) prayers, and they were used in funeral rites in the 1800s. Psalms 24, 51, 113, 119, 130, 148, 149, and 150 were translated and published in the woodblock book Tyeonjyu-syeonggyo-ryegyu (天主聖禮規) in 1865. Psalms 51 and 130 were also translated in Tyeonjyu-syeonggyo-gonggwa. The Psalms were adapted into prayers, with a partial commentary. For the Yeondo (煉禱) prayers, the Psalms contain musical and ritual elements in abundance, since several Christians repeated in unison the Yeondo (煉禱) prayers in their funeral prayers throughout the night and in their funeral processions.

Finally, some of the Psalms were translat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n the Miimi-gyohoe-gangrye, Uigyung-mundab, Wi-wonib-gyoin-gyudo, and Chosun-Christian-journal. Sixty-two of the Psalms were translated in Sipyun-chwalyo.

Keywords

Psalms

Yeondo(煉禱) prayer

Tyeonjyu-syeonggyo-ryegyu(天主聖教禮規)

The year 1900

Translation

■ 투고일: 2015년 04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4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5월 06일



김창주(한신대)

1. 들어가는 말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선교 활동 중 극적인 순간마다 시편을 활용하여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였다(막 15:34; 눅 23:46).¹⁾ 뿐만 아니라 시편은 지난 3천년 동안 많은 신앙인들의 안일한 자세를 자극하였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었으며, 구원의 소망을 불어넣었다. 지금도 신앙인들이 시편 암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틈틈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또한 앞으로 도 시편은 위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옆으로 이웃과 기쁨을 서로 나누며,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1) H. 뒤스베르그, "시편을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학전망」 25 (1974년 여름), 169-78.